

# 樂安吳氏 譯科入格者 기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rd of the Applicants Successful in Yeogkwa from the Nakahn Oh Clan

韓 美 鏡(Han, Mi-Kyung)\*

◁ 목 차 ▷

1. 서 언	3.3 樂安吳氏 譯科入格者 기록의 비교
2. 樂安吳氏族譜	4. 樂安吳氏 譯科入格者 가계의 특징
2.1 樂安吳氏族譜의 성립	5. 결 언
2.2 현전 樂安吳氏族譜	<참고문헌>
3. 樂安吳氏 譯科入格者 기록	
3.1 譯科譜의 기록	
3.2 譯科榜目的 기록	

< 초 록 >

본고는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기록물을 조사, 비교 분석하고,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가계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낙안오씨는 총 219개 성관 중 역과합격자 본인성관 대성순위별 24 위로서 총 37 명의 역과입격자를 낳은 世傳的 邑官 가계이다.

2) 족보와 역과방목의 기록에 의하면 신생파인 서울 中樞公派의 중시조는 吳廷顯이다. 그의 후손들은 이후 8대를 이어 역과에 입격하면서 邑官 집안을 이루었다.

3)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관련 기록물 조사 결과 낙안오씨는 조선후기 신분상승의 邑官가 계로서 일부 선조의 경우 비록 역과입격자는 아니나 邑官으로 출세한 경우도 발견하였다.

4) 현전의 역과보 간에는 전체 구성과 수록대상 입격자수 기록에 차이가 있으나 낙안오씨 역과입격자에 대한 기록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다만 다른 성관의 기록과는 달리 낙안오씨는 1837년부터 1880년까지 기재하고 있다.

5) 족보, 역과보, 역과방목 및 역과유집은 기록의 구성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일부 관직, 초명 개명의 문제 및 字의 기록에 있어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편 이들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기록물은 간에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중 역과방목의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다.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mkhank@korea.com)  
접수일: 200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要語 : 낙안오씨, 낙안오씨 중추공파, 낙안오씨족보, 역과, 역과입격자, 역과보, 역과방  
목, 역과유집

<ABSTRACT>

Through this study, the examin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records of successful applicants from Nakahan Oh clan that passed Yeogkwa was conduc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lineage of applicants successful in Yeogkwa from Nakahn Oh clan was review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Nakahn Oh clan is in the 24th place in total 219 clans from which there were successful applicants for state examination for the selection of official interpreters (Yeogkwan). This Oh clan is a hereditary lineage of interpreters from which total 37 passed Yeogkwa.

2) According to the clan genealogy and Yeogkwa Bangmok, the founder of new JungChuKong sub-lineage is Jeong-hyun Oh. His descendants have formed a family of official interpreters while having passed Yeogkwa for 8 consecutive generations.

3) As a result of the review on the records relating to the successful applicants from Nakahn Oh clan that passed in Yeogkwa, it was found out that this clan is a lineage of family that achieved status elevation in late Chosun times. Some of their ancestors were successful as interpreters even without passing Yeogkwa.

4) Although Yeogkwa Bos show some inconsistency between themselves in terms of the overall structure and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the record of those who passed Yeonkwa from Nakahn Oh clan matches each other, except that Nakahn Oh clan records covers 1837-1880, which is not the case with different clans.

5) The clan genealogy, Yeogkwa Bo, Yeogkwa Bangmok and Yeogkwa Yujip shows difference in terms of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records, especially the records of some official positions, previous names, revised names, and nicknames (ja 字). Meanwhile, records of successful applicants from Nakahn Oh clan in Yeogkwa supplements each other and the record of Yeogkwa Bongmok is relatively detailed.

Key words : JungChuKong Sub-lineage, Nakahn Oh Clan, Nakahn Oh Clan Genealogy, Applicants Successful in Yeogkwa, Yeogkwa Bangmok, Yeogkwa Bo, Yeogkwa Yujip

## 1. 서 언

계급사회인 조선은 신분의 양대계급인 문과와 무과 외에 국정의 대소사를 직접적으로 책임졌던 譯科, 醫科, 律科 및 陰陽科의 중인계급 또한 雜科를 통하여 선발하였다. 그중 역과의 경우 당시 국제정세적 측면의 외교와 대외경제적 측면의 무역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던 중요 중인계급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譯科入格者를 대상으로 한 기록물인 역과방목을 서지적으로 고찰하고, 역과방목과 역과보의 역과입격자 성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sup>1)</sup> 각 줄고에서 기록물 상호간의 기록 불일치 부분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 역과입격자 성명의 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러 기록의 차이 중 특히 낙안오씨 집안의 경우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기록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로 상공인과 역관의 신분상승도 현저하였으며, 과거에 있어서도 잡과는 과에 따라 특정 성관 또는 특정가계가 배타적으로 다수를 점하였다.<sup>2)</sup> 일례로 조선후기 역관집안 중 낙안오씨는 역과입격자 本人姓貫 大姓順位 중 37명의 입격자를 내어 총 219개 성관 중 24위에 오르고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신분상승의 대표적 역관 집안으로 판단되는 낙안오씨 한 가계를 대상으로 역과입격자 관련 기록물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볼만한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역과입격자 명단인 譯科榜目과 譯科類輯<sup>3)</sup>의 기록에 의하면 오씨 姓貫으로 荳原, 海州 및 樂安 집안이 역과에 입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또한 역과입격

1) 한미경, “역과방목에 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30輯(2005. 6), 341-376. 한미경 “역과방목과 역과보의 입격자성명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1輯(2005. 9), 121-151.

2)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305.

3) 이는 권수제면에 “光緒壬午新整”이 墨書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1882년에 새로이 정리된 기록물이다. 이는 기존의 역과입격자관련 기록물 중 팔세보형식의 족보인 譯科譜와는 다르게 全州李氏부터 楊根威氏에 이르기까지 姓貫 별로 역과입격자를 필사 정리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4) 그러나 팔세보 형태의 족보인 역과보의 기록을 살펴보면, 荳原吳氏는 누락되고 海州吳氏와 樂安吳氏만이 기록되어 있다.

자 관련 기록물로 조사된 역과보와 족보, 역과방목 및 역과유집 상의 기록을 살펴 보면 낙안오씨 집안의 역과입격자 기록상황 및 가계의 특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각각의 기록물을 고찰하고 상호 기록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낙안오씨의 경우 17대 선조 吳廷顯으로부터 서울의 中樞公派가 신생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역과에 입격하면서 형성된 특징적인 가계라는 의외의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관련 기록물을 살피고, 조선후기 역관 중 인계급 중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가계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낙안오씨 족보의 성립 및 현전 낙안오씨족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역과보 및 역과방목 상의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낙안오씨족보와 역과보, 역과방목 및 역과유집 상의 기록을 비교분석하여 각 기록물의 기록의 특징 및 차이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낙안오씨 서울 中樞公廷顯派를 중심으로 역과입격자 가계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sup>5)</sup>

## 2. 樂安吳氏族譜

본장에서는 기존의 논고 중 역과입격자 중 초명이나 개명을 사용하여 기록의 차이가 발견된 낙안오씨를 대상으로 우선 祖先의 世代昭穆을 기록하고 있는 족보의 기본적인 성립 및 현전 족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6)</sup>

5) 다만 상세한 낙안오씨 성관 유래, 관직에 대한 고찰, 기록의 차이로 발견된 字에 대한 고찰 등은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조선시대 私家의 족보편찬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걸쳐 활발하였다. 그중 조선 초기 또는 중기에 중간정리단계를 거친 족보는 대체로 충실한 반면 19세기 이후에 창간된 족보는 당대인들의 수록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그 성관의 유래나 선대 세계에 관한 부분은 크게 사실과 어긋나 있다(이수진, 前揭書, 64). 따라서 본고에서는 낙안오씨 족보 성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성관 유래나 선대 세계는 생략하기로 한다.

## 2.1 樂安吳氏族譜의 성립

丁丑譜序에 의하면 오씨의 근원은 海州에서 나왔으며, 나뉘어져 樂安君 7)에 봉해진 사람은 고려의 三司左尹 土龍으로 그가 橋杯公의 鼻祖가 된다. 한편 丁巳譜序에 의하면 世宗祖에 이름 陟之, 호 橋杯와 그의 아우 訓練叅軍 浚이 처음으로 譜牒 世次를 이었다. 이후 순조17년(1817)에 이르러서야 橋杯公派와 叅軍公派가 合譜하면서 비로소 족보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庚午譜序에 의하면 당시 文義, 英陽, 서울 지역의 三派가 연이어 흥년을 만나 힘이 모자라서 合譜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거절하였다는 문구 8)로 보아 그 이후 己亥譜에 비로소 大同譜로 편찬되었고, 9)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울 중추 공파도 그때 합보된 것으로 생각된다. 간행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0)

<표 1> 낙안오씨족보 간행연혁

족보명	간사년	권책	내 용	비 고
丁丑譜	純祖17 (1817)	2卷	湖南 忠淸의 橋杯公 후손과 嶺南의 叅軍公 후손이 兩家家乘을 근거로 合譜.	
庚子譜	憲宗6 (1840)	2卷	橋杯公派와 叅軍公派의 합의하에 修譜.	
丁巳譜	哲宗8 (1856)	2卷	橋杯公派와 叅軍公派 合譜.	
壬辰譜	高宗29 (1892)	2卷	橋杯公派譜.	

7) 「三國史記」, 「高麗史」 및 「新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樂安은 삼한시대에는 允韓의 영역이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分嶮郡이었다. 신라 景德王 때에는 分嶺郡이라 고쳤고, 고려시대에 와서 비로소 樂安으로 고쳐 郡 또는 縣으로 삼았으며, 이후 조선시대에도 그러하였다. 隆熙 2년(1908)에 군을 폐하고 順天, 寶城으로 나누어 붙였다가 1914년에 전라남도 昇州郡에 편입되었다(한국역사지명사전(electronic resource), 서울: 누리미디어, [2000-]).

8) 庚午譜序: 但文英京三派, 連遭議謹力綿, 難合之義, 拒之.

9) 己亥譜序: 去年(1959)秋, 務安宗士泰洙氏, 與高山宗士秉佶氏, 謀修大同全譜, 發文通告, 議及於諸派, 則兩湖及嶺莫不響應, 而樂從. 己亥譜跋: 今於大同之日.

10) 「樂安吳氏族譜」(光州: 樂安吳氏族譜編纂委員會 1985), 9-10.

庚午譜	1930	7卷	橋杯公派와 叅軍公派 合譜.	文義, 英陽, 서울3派 <sup>4</sup> 집
己亥譜	1960	5卷	嶺湖忠淸의 후손이 庚午譜 修譜 후 合譜.	大同譜
乙丑譜	1985	2卷, 別卷	橋杯公派와 叅軍公派가 己亥譜 修譜 후 孫錄 2卷과 文獻과 晝報 別권으로. 단 서울 橋杯公 玄孫 諱爽公 후손과 처음으로 合譜.	大同譜

이상의 표에 의하면 낙안오씨족보는 19세기초에 橋杯公派와 叅軍公派 두과 합보인 丁丑譜를 시작으로 20세기 중반경에 비로소 대동보로 편찬된 己亥譜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이상의 두과에 의하여 合譜 또는 修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乙丑譜에 의하면 낙안오씨는 16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즉 橋杯公涉之派, 叅軍公洽派, 梅栢公喜駟派, 瑞隱公笠派, 兪樞公景毅派, 石城君連派, 清河公井派, 錦溪公定邦派, 中樞公廷顯派, 判官公傑派, 諫議公哲儉波, 菊軒公受訥派, 宣傳官公德標派, 通德郎公德林派, 同樞公德根派, 才山公德先派이다.<sup>11)</sup> 그중 본 연구의 대상인 서울의 中樞公廷顯派는 역과방목의 기록에 의하면 1682년 壬戌年 增廣試에서 처음으로 역과에 입격한 吳相良의 부친 廷顯부터 시작된다. 족보상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資憲大夫知中樞府事’를 지내고, 서울 지역의 中樞公派<sup>12)</sup>의 중시조가 되었다. 한편 역과방목의 吳相良의 父 기록 부분의 ‘父譚知樞廷顯을 미루어 오정현이 역과의 지추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하 표 4 참조).

11) 각 과의 알려진 지역별로 살펴보면 光州의 梅栢公喜駟派, 同福谷城의 瑞隱公笠派, 光山藍峙의 兪樞公景毅派, 淸州의 石城君連派, 文義의 石城君連派, 務安의 清河公井派, 高山의 錦溪公定邦派, 서울의 中樞公廷顯派, 綾州의 判官公傑派, 咸平高陽의 諫議公哲儉波, 英陽의 菊軒公受訥派 등이다.

12) 참고로 족보상의 기록과 족보 권말의 樂安吳氏各派行列圖에 의하면 서울의 中樞公廷顯派의 항렬은 다음과 같다. 즉 17世 오정현 이후 18世 相○, 19世 泰○, 20世 道○, 21世 載○, 22世 命○, 23世 ○換, 24世 致○, 25世 大○, 26世 光○, 27世 ○基, 28世 鎮○, 29世 ○泳, 30世 東○, 31世 ○熙, 32世 周○, 33世 ○鎬, 34世 泰○, 35世 植○과 같다. 그중 역과방목에 오른 37명의 역과입격자는 18世부터 25世까지이며, 역과보에 기재된 13명의 역과입격자는 24世와 25世이다. 다만 실제 족보상의 기록에 의하면 吳時成, 吳時敏, 吳時煥, 吳時璟 및 吳時珽의 경우처럼 23世는 ○換 이 아닌 時○를 항렬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 2.2 현전 樂安吳氏族譜

낙안오씨족보 현전본은 세보와 파보 및 족보의 서명으로 일부 전한다. 현재 조사결과 대부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일부 경북대학교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각 현전본에 대한 사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현전 樂安吳氏族譜

서명	권 책	간사 사항	형태 사항	주 기 사 항	비 고
樂安吳氏世譜	本譜 5卷 5冊, 文獻 1卷 1冊, 墓山圖 1冊	順天: 樂安吳氏世譜所, 1930.	木活字本, 四周單邊. 半郭 16.3×12.4cm. 有界. 11行24字 註雙行. 上下向3葉花紋魚尾; 33.1×21.9cm	重修序: 庚午(1930) …[吳]秉勳 [吳]永瓚 跋: 上章敦祥(庚午, 1930) …[吳]浩根.	· 庚午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樂安吳氏世譜	3卷 3冊	鳳城: [刊寫者未詳], 高宗 29(1892).	木活字本, 四周單邊. 半郭 26.0×18.0cm. 有界. 11行24字, 世別6段,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33.6×21.7cm	舊譜序: 崇禎紀元後四丁巳(1857)…宋來熙 舊譜序: 崇禎紀元後四丁丑(1817)…宋穉圭 跋: 上之二十八年辛卯(1891)…吳景龜 印記: 崇禎紀元後五壬辰(1892)…鳳城開刊	· 壬辰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樂安吳氏世譜	4冊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30.	木活字本, 四周單邊. 半郭 24.5.0×17.4cm. 有界. 11行24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33.9×21.7cm	序: 庚午(1930)…吳秉勳. 序: 庚午(1930)…吳永瓚. 序: 上章敦祥(庚午, 1930)…吳永燮. 跋: 庚午(1930)…吳有德.	· 庚午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樂安吳氏族譜	2卷 2冊	高山: [刊寫者未詳], 純祖 17(1817).	木活字本, 四周單邊. 半郭 26.1×16.6cm. 有界. 11行24字, 世別6段 註雙行. 內向黑魚尾; 35.7×22.4cm	序: 崇禎紀元後四丁丑(1817)…宋穉圭 跋: 崇禎紀元後四丁丑(1817)…[吳]壽民, [吳]世安. 印記: 丁丑(1817)…高山開刊	· 石成君派一僉正公派 · 丁丑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樂安吳氏派譜	2卷 1冊	東巖: 向陽齋, 1918.	木活字本, 四周單邊. 半郭 24.7×16.3cm. 有界. 10行21字, 世別6段 內向2葉花紋魚尾;	表題; 序題 樂安吳氏家乘譜. 印記: 戊午(1918)… 東巖向陽齋開刊.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乙丑譜

			31.1×20.1cm		예기술 누락. · 戊午譜 로추정.
樂安 吳氏 世譜	5冊(缺秩)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30.	四周單邊. 半郭 24.3×17.4 cm. 無界. 11行18字. 上下向3葉花紋魚尾; 32.9×21.8cm	跋: 上章敦洋(庚午, 1930)… [吳]浩根	· 庚午譜 · 경북대 소장
樂安 吳氏 族譜	2冊, 文獻1冊	光州: 樂安吳氏族 譜編纂委員 會, [1985]			· 乙丑譜

이상의 표에 의하면 현전 낙안오씨족보는 근래 들어 편찬된 乙丑譜 외에 丁丑譜 1종, 壬辰譜 1종, 庚午譜 3종이 전하며, 1918년 戊午譜의 경우 을축보의 족보 간행연혁 기술에서 언급되지 않은 현전본이다.

한편 이상의 낙안오씨족보 외에도 낙안오씨 문중 등 私家에도 일부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사되어진 현전하는 낙안오씨의 족보 중 본고의 연구 대상인 서울 中樞公派에 대한 기록은 대동보로 편찬된 己亥譜와 乙丑譜에서 찾아질 것으로 생각되나 己亥譜의 현전여부를 알 수 없어 안타깝다. 따라서 중추공파에 대한 기록은 樂安吳氏族譜編纂委員會에 의해 편찬되어 현전하고 있는 乙丑譜에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다.

### 3. 樂安吳氏 譯科入格者 기록

본장에서는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관련 기록으로 우선 역과보와 역과방목에 대하여 살펴보고, 더 나아가 낙안오씨족보를 비롯하여 역과보와 역과방목 및 역과유집 상의 역과입격자에 대한 기록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3.1 譯科譜의 기록

현전 역과보를 살펴보면 실제 성관별 기록의 순서나 내용상 일부 차이가 발견되나,<sup>13)</sup> 낙안오씨의 경우 4종 역과보간의 기록의 차이는 없다. 역과보에 기록되어 있는 13명의 역과입격자 및 선대 중 역과입격자나 피선자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표 3-2>와 같다.<sup>14)</sup>

<표 3-1> 역과보상의 기록 1

본인	吳時珽 丁酉式 (1837)	吳致憲 丙午式 (1846)	吳致德 丙午式 (1846)	吳致默 丙午式 (1846)	吳致儉 庚戌增 (1850)	吳致萬 戊午式 (1858)	吳致翼 己未增 (1859)
1대조	命教 譯科參奉	時成 譯科正	時成 見上	時煥 譯科僉正		時璟 譯科判官	時懋 時煥見上
2대조					命範 譯科判官 命毅 譯科同樞		
3대조	道鎔 譯科僉正						
4대조	泰元 譯科僉正						
5대조	相采 譯科嘉善						
6대조				相良 譯科同樞			
7대조							
8대조							
처부							
외조부			竹山 安錫玄 譯科僉樞	開城 金東佑 譯科訓導			

- 13) 현전 역과보는 장시각 소장본인 「譯科譜」와 규장각, 명지대학교도서관 및 연세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인 「譯科八世譜」가 있으며, 상세내용은 한미경, “역과방목과 역과보의 역과입격자에 대한 연구,” <표 2>와 <부록 1>을 참조 바란다.
- 14) 본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13명의 역과입격자 선대들 중 역과입격자나 피선자, 즉 역관 역임자로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일부 역과입격자의 선대 중 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전자는 父, 후자는 生父이다.

<표 3-2> 역과보상의 기록 2

본인	吳致祥 甲子增 (1864)	吳大鎭 甲子式 (1864)	吳致駿 丁卯式 (1867)	吳大永 戊戌增 (1874)	吳致麟 丙子式 (1876)	吳大承 庚辰增 (1880)
1대조	時綸 被選僉樞	致默 見上	時珽 見上	致儉 見上 致喜	時珽 見上	
2대조	命毅 見上			時敏 譯科奉事		
3대조						
4대조						
5대조						
6대조						
7대조						
8대조						
처부		開城 金東佑 譯科訓導				
외조부				開城 金鼎九 譯科嘉善	務安 朴健性 譯科正	

이상 역과보의 기록을 통하여 본인과 팔대조 및 처부와 외조부의 역관진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다. 역과보의 기록에서 발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職域의 世傳的 계승 양상. 역과보에 기록된 총 13 명의 선대를 살펴보면 대부분 역관이라는 직역이 세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吳時珽과 같은 경우는 3대에서 5대까지의 선조들도 역관을 역임하고 있어 관직 계보 상 세전성이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階級內婚制의 양상. 특히 吳致德, 吳致默, 吳大鎭, 吳大永, 吳致麟의 경우를 보면 처부나 외조부 또한 역관출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잡과 입격자들의 가계에서 보이는 階級內婚制의 양상이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된다.<sup>15)</sup>

셋째, 초명기록 부분. 이상 역과보의 기록을 살펴보면 모두 개명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초명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실제 이는 초명 개명에 대한 기록은 현전의 일부 역과방목과 족보에서만 발견된다.

넷째, 기록범위 부분. 역과보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1837 丁卯年 式年試의 吳時斑부터 1880 庚辰年 增廣試의 吳大承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 외 19세기에 입격한 다른 입격자 즉 1828 戊子年 式年試의 吳致中, 1834 甲午年 式年試의 吳時璟은 누락되어 있다. 한편 현전 4종의 역과보를 살펴보면 순종 18년(1828) 戊子年 式年試의 입격자의 일인인 '崔寅植'의 기록이 가장 이르다.<sup>16)</sup> 이를 미루어 역과보는 대략 1820년대 후반의 역과입격자부터 대상으로 하여 기술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가계, 특히 낙안오씨의 경우 이전 역과입격자의 명단을 누락하였거나, 다른 시기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역과보에 기록된 낙안오씨 가계의 경우 1837 丁卯年 式年試부터 1880 庚辰年 增廣試까지의 역과입격자를 대상으로 개명된 성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기록 내용을 통하여 두드러진 職域의 世傳的 계승 및 계급내혼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3.2 譯科榜目の 기록

현전 역과방목 중 규장각과 하버드 앤칭도서관 소장 역과방목 상의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sup>17)</sup>

15) 참고로 실제 본표 정리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선대들과 처부 및 외조부의 관직을 살펴보면, 역과 이외의 의과와 같은 잡과 관직 역임자가 많이 발견된다. 이는 중인계급간 계급내혼제의 분명한 양상으로 보인다.

16) 한미경, 전계서, 124 주 5.

17) 현전 역과방목은 7종으로 「司譯院榜目」(하버드앤칭도서관), 「象院科榜」(국사편찬위원회), 「譯科榜目」(고려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그리고 「院榜」(규장각)이 있다. 그중 한미경, “역과방목과 역과보의 역과입격자성명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면 규장각 소장본 「譯科榜目」(약칭 규장각2소장본; 규2역방; 규2)과 「院榜」(약칭 규장각 소장본; 규1역방; 규1) 및 하버드앤칭도서관 소장본 「司譯院榜目」(약칭 하버드소장본 하역방; 하) 중 규장각2소장본이 대체적으로 기록이 완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표는

<표 4> 역과방목의 기록

시 험 년	성 명	父 子 관 계	초명 기록	비 고
1682 壬戌增	吳相良	父譚知樞廷顯 *		* 吳廷顯:서울중추공과 증시조
1683 癸亥增	吳相賚	相良弟 *		* 부자관계:父 또는 子로 표기하나 弟로 표기
1689 己巳增	吳相采	" *		* "
1690 庚午增	吳泰說	父禮賓主簿潤身 *		* 潤身: 吳相信
1708 戊子式	吳泰元	相采子		
1714 甲午增	吳泰齡	相賚子		
1720 庚子式	吳道遠	父司吳泰亨	初名喜壽	· 족보: 吳道源
1722 壬寅增	吳泰謙*	相賚子	初名泰安 *	· 족보: 吳泰安, 字亨甫, 肅宗辛巳1701年生同樞
1735 乙卯式	吳道銓	泰元子		
1740 庚申增	吳道鉉	父譚同樞泰興 *		* 父: 被選
	吳道鎔	泰元子	初名晚大	
1741 辛酉式	吳載綬	父僉使喜大		
1754 甲戌增	吳載和	父司勇世大 生父譚直盛大 *		* 生父: 被選 · 족보: 生父道鍵
	吳載源	父道銓 生父敎誨察 訪道鉉	初名載淳 *	· 족보: 父道鎬
	吳載恒	道鎔子		
1780 庚子式	吳命訥	父司猛載賢		· 족보: 改諱命九
1790 庚戌增	吳命毅	載恒子		
1804 甲子增	吳命範	"		
1810 庚午式	吳時成	父司勇命養		
	吳命敎	載恒子		
1813 癸酉增	吳時敏	父醫科正命華		
1827 丁亥增	吳時煥	父命權		
1828 戊子式	吳致中	時成子		
1834 甲午式	吳時環	命敎子		
1837 丁酉式	吳時珽	"		· 족보: 初諱時英
	吳致憲	時成子	初名處中	· 규1,하: 吳處中
	吳致德	"	初名擇中	· 규1,하: 吳擇中
	吳致默	時煥子		
1850 庚戌增	吳致儉	父時綱	初名仁祥	· 규1,하: 吳仁祥
1858 戊午式	吳致萬	時環子	初名胤祥	· 규1,하: 吳胤祥
1859 己未增	吳致翼	父時燮 生父譚科僉 正時煥		

규장각2소장본을 대상으로 조사 정리하되, 다만 입적자성명의 경우 규장각 소장본과 하버드 소장본 상에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에 기술하였다. 이하 약칭은 이상의 기술을 따르며, 그 외 역과방목은 기본적으로 규장각2 소장본을 이른다 한편 시험명은 '서기년 시험간지년+시험종류'로 기술하되, 式年試는 '式', 增廣試는 '增'으로 약기하였다.

1864 甲子增 1864 甲子式	吳致祥 吳大鎮	父譚僉樞時綸 致默子	初名益祥	· 규1: 吳益祥 * · 하: 初名과 父 부기 *
1867 丁卯式	吳致駿	時斑子	初名駿祥	· 규1: 吳駿祥 · 하: 初名 부기 *
1874 戊戌增	吳大永	致儉子生父致喜		
1876 丙子式	吳致麟	時斑子		· 족보: 初諱徽祥
1880 庚辰增	吳大承	父致喜		

이상의 표에 의하면 17세기말부터 19세기말까지의 역대 낙안오씨 서울 중추공과의 역과입격상황과 총 37명의 입격자에 대하여 알 수 있다<sup>18)</sup> 역과방목 상의 기록을 통해 살펴본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과방목에 실린 총 37명의 역과입격자를 통하여 낙안오씨는 조선시대 잡과입격자의 경우 성관상이나 가계상으로 뚜렷하게 배타적 다수를 점하는 대표적인 일 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낙안오씨 역과입격자는 총 219 개 姓貫<sup>19)</sup> 중 본인성관 대성순위별 24위<sup>20)</sup>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족보를 통하여 낙안오씨 역과입격자의 가계 중시조로 서울 중추공과 오정현을 알게 되었다. 족보의 기록으로 그는 ‘資憲大夫知中樞府事’를 지냈으나 역과방목에는 그에 대한 역과입격자로서의 어떠한 기록도 없다. 그러나 본 역과방목상

18) 이상의 역과방목의 기록 외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譯科類輯에도 역과에 입격한 낙안오씨 총 37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19) 역과유집의 기록을 보면 李氏 32개 姓貫, 金氏 43개 姓貫, 崔氏 13개 姓貫, 安氏 2개 姓貫, 鄭氏 10개 姓貫, 朴氏 14개 姓貫, 韓氏 2개 姓貫, 洪氏 1개 姓貫, 趙氏 10개 姓貫, 卞氏 1개 姓貫, 玄氏 2개 姓貫, 吳氏 3개 姓貫, 劉氏 4개 姓貫, 方氏 3개 姓貫, 秦氏 2개 姓貫, 張氏 9개 姓貫, 尹氏 3개 姓貫, 邊氏 1개 姓貫, 高氏 3개 姓貫, 申氏 2개 姓貫, 康氏 3개 姓貫, 白氏 2개 姓貫, 黃氏 2개 姓貫, 姜氏 1개 姓貫, 皮氏 1개 姓貫, 林氏 4개 姓貫, 南氏 1개 姓貫, 愼氏 1개 姓貫, 丁氏 2개 姓貫, 周氏 2개 姓貫, 田氏 2개 姓貫, 徐氏 4개 姓貫, 許氏 1개 姓貫, 閔氏 1개 姓貫, 柳氏 2개 姓貫, 梁氏 2개 姓貫, 宋氏 3개 姓貫, 慶氏 1개 姓貫, 權氏 1개 姓貫, 文氏 2개 姓貫, 奇氏 1개 姓貫, 宣氏 1개 姓貫, 全氏 4개 姓貫, 千氏 1개 姓貫, 盧氏 2개 姓貫, 沈氏 1개 姓貫, 禹氏 1개 姓貫, 郭氏 1개 姓貫, 表氏 1개 姓貫, 馬氏 1개 姓貫, 元氏 1개 姓貫, 魯氏 1개 姓貫, 陳氏 1개 姓貫, 庾氏 1개 姓貫, 池氏 1개 姓貫, 蔣氏 1개 姓貫, 咸氏 1개 姓貫으로 총 219개 성관이다. 참고로 잡과 입격자의 총 성관수는 437개 이다.(이수건, 前揭書, 307-308)

20) 이수건, 前揭書, 306 <표 6>.

의 최초 낙안오씨 역과입격자인 ‘吳相良’의 父 기록부분에서 ‘父譚知樞廷顯’이라는 것으로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역과방목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역과입격자이기보다는 被選 등의 방법으로 역관을 역임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역과방목의 기록을 기본으로 다른 기록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被選의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는 1864 甲子年 增廣試의 吳致祥의 경우로 역과방목(하버드소장본 포함)은 ‘父譚僉樞時綸’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역과보의 기록을 살펴보면 吳時綸은 吳致祥의 父로써 ‘被選僉樞’임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낙안오씨족보에도 ‘僉樞’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낙안오씨의 경우 역관 집안으로 비록 역과입격자는 아니나 피선되어 출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1740 경신년 증광시의 吳道鉉의 부 吳泰興, 1754 갑술년 증광시의 吳載和의 생부 吳盛大<sup>21)</sup> 또한 역과방목 상에 기록된 역과입격자가 아니므로 그런 경우로 판단된다.

넷째, 역과방목의 기록 중 일부 입격자의 성명, 초명의 기록, 생년간지, 부와 생부의 기록과 같은 부분에서 족보의 기록과는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하였다.<sup>22)</sup> 그중 1722 임인년 증광시 吳泰謙의 경우로 역과방목은 ‘吳泰謙 字亨甫 壬午(1702)生 漢學 初名泰安’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족보는 ‘吳泰安 字亨甫 肅宗辛巳1701年生 同樞’라 기록되어 있다. 이는 자 이외의 생년간지는 1년 상간이며 그 외 성명, 생년간지, 관직의 기록에 차이가 보인 경우이다. 성명은 초명까지 기록한 역과방목이 자세하나, 관직은 ‘同樞’라 기록한 족보가 더 상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역과입격자 개인 신상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관련 기록물에 대한 서지적 고찰이 선행되어야함을 알려주는 일례라 생각된다.

21) 족보에 의한 ‘生父道健’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盛大가 초명이고, 道健이 개명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에 대한 기록은 어느 기록물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후 진일보의 구명이 필요하다.

22) 1720년 庚戌增의 吳道遠(성명 부분), 1722년 壬寅增 吳泰謙(성명, 초명기록, 생년간지, 관직부분), 1754년 甲戌增의 吳載和(생부 부분), 1774년 甲午增의 吳載源(父 부분), 1780년 庚戌增의 吳命訥(개명 부분), 1837년 丁酉式의 吳時斑(초명 부분), 1876년 丙子式의 吳致麟(초명부분)이 그렇다.

다섯째, 초명과 개명 사용에도 특이한 면이 발견되었다. 이상 <표 4>에서 보듯이 낙안오씨 중 초명과 개명이 있을 경우 규장각2소장본은 기본적으로 개명으로 기록하고 초명을 부기하고 있으나, 하버드소장본과 규장각1소장본은 대부분 초명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1865 甲子年 增廣試의 吳致祥和 1867 丁卯年 式年試의 吳致駿의 경우 하버드소장본은 특이하게도 개명을 기록하고 초명은 부기하였다. 예외적인 이러한 기록에 대한 연유는 아쉽게도 현재 확인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역과방목의 기록을 통하여 낙안오씨 집안은 최소한 17세기 후반 吳相良부터 꾸준히 역과에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상 몇가지 역과방목 기록 분석을 통하여 낙안오씨 역과입격자와 관련하여 역과방목이 가지고 있는 기록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 3.3 樂安吳氏 譯科入格者 기록의 비교

역과보에 기록된 13명의 낙안오씨 역과입격자를 대상으로 족보, 역과보, 역과방목 및 역과유집 상의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sup>23)</sup>

<표 5> 낙안오씨 역과입격자의 기록

성명	族譜	譯科譜	譯科榜目	譯科類輯	비고
吳時莚	初諱時英 * 字佰珪 通政 乙亥	白珪 * 乙亥	字佰珪 (하 佰圭 *) 乙亥生 蒙學別遞兒正	伯圭 * 乙亥 蒙學別遞兒 通政	*족보: 초명기록 *字
吳致憲	初諱處中	仁壽	字仁壽	仁壽	

23) 본 표는 세 기록물간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성명부분, 자호부분, 생년간지, 관직을 위주로 각 기록물상의 표기대로 정리하였다. 한편 역과방목의 경우 상기하였듯이 규장각2소장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하버드소장본의 경우 다른 경우만 '하'로 약칭하여 ( )에 부기하였다. 다만 규장각1소장본의 경우 오류가 많아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한편 각 기록물간의 불일치는 차이가 보이거나 다른 경우 및 다른 기록물에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로 표기, 비교에 특기하였다. 일부 확인이 어려운 글자는 '?'를 붙였다.

	字仁壽 庚辰	庚辰	庚辰生 漢學官奉事 初名處中	庚辰 漢學官	
吳致德	初諱擇中 字善拳 * 壬午	重明 壬午	字重明(하 善眷 *) 壬午生 漢學偶語別遞兒正 初名擇中	仲明 * 壬午生 漢學偶語別遞兒	*字
吳致默	字穉養 崇祿知樞 * 庚辰	致養 * 庚辰	字穉養(하 致良 *) 庚辰生 倭學教誨嘉義同樞 *	雉養 庚辰 倭學教誨嘉崇祿知樞 *	*字 *관직 · 稚: 穉와 동자
吳致儉	初諱仁祥 字壽汝* 戊子 知樞 *	仲恭 戊子	字仲恭 戊子生 清學上通事判官 初名仁祥	壽如 * 戊子 清學上通事	*字 *관직
吳致萬	初諱胤祥 字永錫 * 庚子	致和 庚子	字致和 庚子生 蒙學參事 * 初名胤祥	石之 * 庚子 蒙學別遞兒 *	*字
吳致翼	字景勳 主簿 * 丙申	景勳 丙申	字景勳 丙申生 漢學三押物主簿 *	景勳 丙申 漢學三押物 *	*관직
吳致祥	字謙受 * 通訓判官 * 甲申	稚頑 甲申	字稚頑 甲申生 漢學別選判官 *	致貞 * 甲申 漢學別選?正*	*字
吳大鎮	字周玉	周玉 戊申	字周玉 戊申生 漢學次上通事正	周玉 戊申 漢學次上通事	
吳致駿	初諱駿祥 字稚英 主簿 * 丙午	稚英 丙午	字稚英 丙午生 漢學聰敏奉事 * 初名駿祥	致英 * 丙午 漢學聰敏主簿 *	*字 *관직
吳大永	字福御 戊午 都正 *	福御 戊午	字福御 戊午生 漢學 *	福御 戊午生 漢學三押物 *	*관직
吳致麟	初諱徹祥 * 字稚由 * 庚戌	公振 庚戌	字公振 庚戌生 漢學直長	公振 庚戌 漢學	*속보: 초명기록 *字
吳大承	字啓來 乙卯	啓來 乙卯	字啓來 乙卯生 清學直長	啓來 乙卯 清學	

이상의 표를 통하여 낙안오씨 서울 중추공파 기록물 상호간의 역과입격자에

대한 성명, 자호, 생년간지, 관직부분에 대한 기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 각 기록물상의 기록 내용은 비록 조금씩 다르나,<sup>24)</sup> 각 기록물간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상호간의 기록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첫째, 각 기록물간 기록 내용의 정도 차이. 이상의 <표 5>에서 보이듯이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관련 기록 내용 중 성명, 자호, 생년간지, 관직부분에 대하여 역과보의 기록이 가장 단순하며, 역과방목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다. 그러나 일부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는 초명이 발견되었다. 여하간 이러한 기록 내용의 정도 차이는 실제적으로 상호 보완적 또는 참조적 역할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관직 기록 유무와 상세 정도의 차이. 우선 관직의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역과보는 전혀 관직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족보는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족보는 심한 경우 일부 역과입격자는 특별한 기록이 없기도 하다.<sup>25)</sup> 이에 비해 역과방목과 역과유집은 역과 四學別<sup>26)</sup>로 구분하여 관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다만 역과방목이 보다 상세하며, 역과유집은 다소 간략하기는 하나 일부 역과방목의 기록에 대하여 보완적이다.<sup>27)</sup> 따라서 심한 경우 역과보나 역과방목 및 역과유집을 살피지 않고 족보만을 참조한다면 역과입격여부 또는 관직 역임 이력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초명 및 개명의 문제. 기존의 역과방목과 역과보의 역과입격자 기록을 비교할 때, 낙안오씨는 초명과 개명을 사용하여 기록의 차이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실제 족보에는 초명이 밝혀져 있으나 역과방목은 전혀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sup>28)</sup> 즉 역과보와 역과유집은 개명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4) 즉 역과보는 성명, 자호, 생년간지, 입격년 및 8대조, 처부와 외조부관련 내용을, 족보는 성명, 자호, 관직 및 行職<sup>職職</sup>을, 역과방목은 성명, 자호, 생년간지, 본향, 상세관직, 초명, 가계관련내용을, 그리고 역과유집은 성명, 자호, 생년간지, 상세관직, 본가 및 외가 내용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25) 吳大鎭과 吳大承이 특히 그러하여 자나 생년간지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 누락외의 특별한 연유가 있을 듯 하나 현재 알 수 없다.

26) 漢學, 淸學, 蒙學, 倭學을 이른다.

27) 吳致默, 吳致萬, 吳致祥, 吳致駿, 吳大英 이 그렇다.

28) 이는 吳時珽, 吳致麟이 그렇다. 1837년 전의 경우는 이상 32. 역과방목의 기록, 넷째 경우를 참조 바란다.

로 기록물만을 살핀다면 실제 개명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넷째, 자의 기록차이. 이상 <표 5>를 살펴보면 字의 기록에 있어서는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는 다른 자가 기록된 경우와 이체자 사용의 경우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吳致德, 吳致儉, 吳致萬, 吳致祥, 吳致麟 등의 예로서 주로 족보와 역과유집에서 다른 자로 기록하고 있는 사례이다. 그중 오치덕의 경우 족보는 字善拳으로, 하버드소장본은 善眷으로 기록하고 있어 두 기록물간의 관련성을 엿보게 한다. 字 기록의 불일치 중 후자의 경우는 吳時斑과 吳致墨에서 찾아진다. 吳時斑의 字에 대하여 역과보는 白珪, 족보와 역과방목은 佰珪, 하버드 소장본 역과방목은 佰圭, 역과유집은 伯圭라 기록하고 있다. 吳致墨의 경우 족보, 역과방목 및 역과유집은 釋養으로 일치하나, 역과보는 致養 하버드소장본 역과방목은 致良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보면 대체적으로 역과방목이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으며, 역과보가 대체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족보와 역과방목은 기록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으며, 하버드소장본 역과방목은 字에 있어서 다른 것과는 불일치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하버드소장본 역과방목이 규장각의 역과방목을 대본으로 전사하고, 다른 자료를 참고하면서 오기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 4. 樂安吳氏 譯科入格者 가계의 특징

이상의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관련 기록물인 족보, 역과보, 역과방목 및 역과유집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역과방목의 기록을 살펴보면 낙안오씨 중 역과입격자는 총 37명이다. 즉 낙안오씨 역과입격자는 총 219개 성관 중 전체 역과입격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 성관 대성순위별 24위로서 잡과에서 나타나는 특정 성관 또는 특정 가계가

배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가계이다.

둘째, 족보를 통하여 낙안오씨 역과입격자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서울 中樞公派의 후손들이었다. 즉 1682년 壬戌增의 역과입격자 吳相良이 최초의 낙안오씨 역과입격자로서 역과방목상 가계 기록을 보면 ‘父譯知樞廷顯’이다. 즉 오상량의 부친 오정현은 낙안오씨 17世로서 족보상의 관직은 ‘資憲大夫知中樞府事’이며, 역과방목의 기록을 통하여 비로소 역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신생파 서울 중추공파의 증시조가 되며, 이후 낙안오씨 서울 중추공정현파는 조선후기 신분상승의 대표적인 증인계급이 된다.

셋째, 낙안오씨 중 서울 중추공파는 世傳的으로 역관이라는 職域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증시조 오정현의 다섯 아들 중 세 아들이 역관에 입격하면서 본격적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부록 1>에서 <부록 4> 참조). 즉 18世인 오정현의 세 아들부터 25世에 이르기까지 8대에 걸쳐 계속적으로 역관에 진출하였고, 후손들이 대부분 직역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四子인 吳相采 직계의 경우 25세 吳大承과 吳大英에 이르기까지 총 22명을 역관으로 출세시키고 있다.

넷째, 역과보를 분석하여 보면 낙안오씨 역과입격자로 기록된 13명은 서울 중추공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팔대조와 처부 및 외조부의 관직을 보면 역관출신이 23명이나 있다. 그 외 의관과 같은 잡과의 관직을 역임한 선대들도 다수인 것으로 미루어, 낙안오씨는 조선후기 계급내혼제의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인계급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낙안오씨는 기존의 역과입격자 성명에 대한 기록차이를 비교 분석할 때 발견된 초명과 개명의 사용으로 인한 특이한 결과를 보여준 가계이다. 족보와 역과방목 조사 결과 실제 개명된 인물들이 많았다.(이상 표 4와 표 5 참조). 이러한 연유로 신생파로 형성되면서 새로운 항렬에 맞추어 개명하면서 발생한 경우가 아닌가 사료되나 현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여섯째,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관련 기록물로 족보, 역과보, 역과방목 및 역과유집을 살펴보면, 실제 역과입격자가 아니나 역관을 지낸 인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추공파의 오정현이 그러하나, 그는 증시조이며 역관집안을 일으킨 최

초의 선조이다. 그러나 이후 후손들 중 吳道鉉의 부 吳泰興과 吳載和의 생부 吳盛大 그리고 吳致祥의 부 吳時綸은 실제 37명의 역과입격자에 포함되지 않으니 당연히 역과방목에는 올라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역과에 응시하여 입격되기 보다는 피선 또는 그외의 경로를 통하여 역관이 된 인물들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가계의 특징을 종합하면 낙안오씨 서울 中樞公廷顯派는 1628년 壬戌年 增廣試에서 吳相良이 역과에 입격한 후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가업을 계승하여 世傳性을 보이는 역관 집안으로 성장하여 온 대표적인 중인계급이라 할 수 있다.

## 5. 결 언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관련 기록물인 족보, 역과보, 역과방목 및 역과유집의 기록 내용을 고찰 및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잡과는 문과나 생진과와 달리 입격자의 姓貫이 大貫보다는 稀貫, 僻貫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非土姓인 신생본관 출신이 잡과에 많이 응시했기 때문이며, 본 연구의 대상인 낙안오씨의 경우 또한 잡과 특히 역과에 대거 진출한 가계이다.

둘째, 역과방목과 역과유집의 기록에 의하면 낙안오씨는 총 219개 성관 중 역과입격자 본인성관 대성순위별 24위로서 총 37명의 역과입격자를 낳은 역관 가계이다. 이는 잡과에서 나타나는 특정 성관 또는 특정 가계가 배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실례이다.

셋째, 낙안오씨족보는 1817년에 처음으로 丁丑譜가 성립되었다. 이후 庚子譜(1840), 丁巳譜(1856), 壬辰譜(1892), 庚午譜(1930), 己亥譜(1960), 乙丑譜(1985)가 간행되었으며, 그중 己亥譜부터 大同譜로 편찬되었다. 현재 낙안오씨세보,

낙안오씨족보, 낙안오씨파보 등으로 전하고 있고, 본 연구의 대상인 중추공파에 대한 기록은 현전 낙안오씨족보 중 1985년의 을축보에서 찾아진다.

다섯째, 현전 4종의 역과보는 전체 구성과 수록대상 입격자수 기록에 차이가 있으나, 낙안오씨 역과입격자에 대한 기록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넷째, 현전 역과보를 보면 최소한 순조 28년(1828) 戊子年 式年試부터 고종 25년(1888)까지 기록하고 있다. 반면 역과보상의 낙안오씨는 1837년부터 1880년까지의 역과입격자를 대상으로 편찬되었으며, 1828 무자년 식년시의 吳致中과 1834 갑오년 식년시의 吳時璟의 기록은 누락되어 있다.

여섯째, 역과보에 기록된 낙안오씨는 서울 中樞公廷顯派 후손의 역과입격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중인계급, 특히 역관의 신분상승 및 신분다지기의 목적으로 편찬된 전문 집단보로 사료된다.

일곱째, 역과보에 기록되어 있는 13명의 역과입격자의 팔대조와 처부 및 외조부 중에도 다수의 선대가 역관을 역임하였으며, 그 외 잡과 진출자도 어느 정도 보인다. 이를 통하여 낙안오씨 서울 중추공파도 계급내혼제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중인계급 가계임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역과방목에 의하면 낙안오씨 중 1628년 임술증의 吳相良부터 역과에 진출하였으며, 역과방목과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부친 吳廷顯이 피선 등의 방법으로 역관이 되어 서울 중추공파의 중시조가 된다. 이후 19세기말 25세까지 그의 후손들이 8대를 이어 역과에 입격하면서 職域이 세전적으로 계승된 역관 집안을 이루게 된다.

아홉째, 족보, 역과보, 역과방목 및 역과유집은 기록의 구성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관직, 초명 개명의 문제 및 字의 기록에 있어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편 이들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기록물의 기록 내용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중 역과방목이 기본사항 외에 관직, 초명 등의 기록이 상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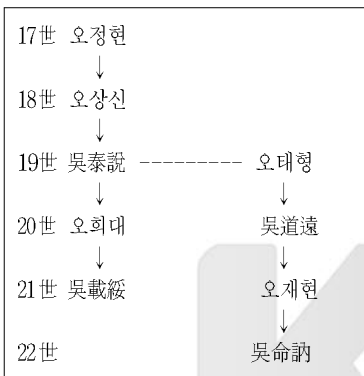
열째, 현존 역과방목 중 풍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역과방목은 字의 기록에 일부 문제가 발견되었다.

열한째, 낙안오씨 집안은 역과 진출의 중인계급으로서 일부 인재의 경우 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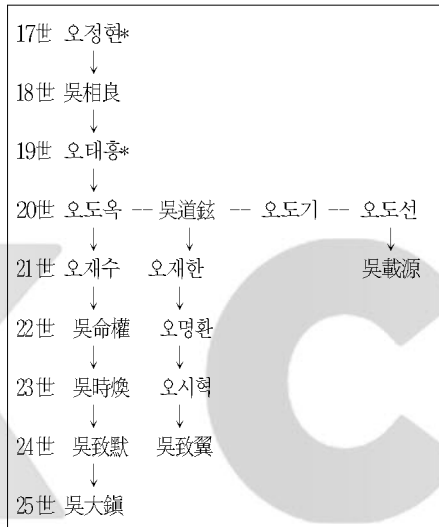
역과입격자는 아니나 역과입격자를 많이 배출한 집안으로서 역관으로 피선되어 출세한 경우도 있다.

종합적으로 본고는 조선후기 역과입격자 기록을 대상으로 각 관련 기록물을 조사 및 비교 분석하였으며,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가계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본고가 조선시대 국제적 경제적 중인계급이며, 후기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로 현격한 신분적 상승을 한 중인계급의 대표적인 집단인 역관 가계와 당시 사회상 및 정치상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부록 1>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계보 1<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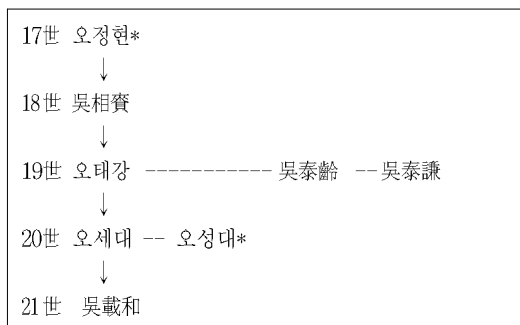


<부록 2>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계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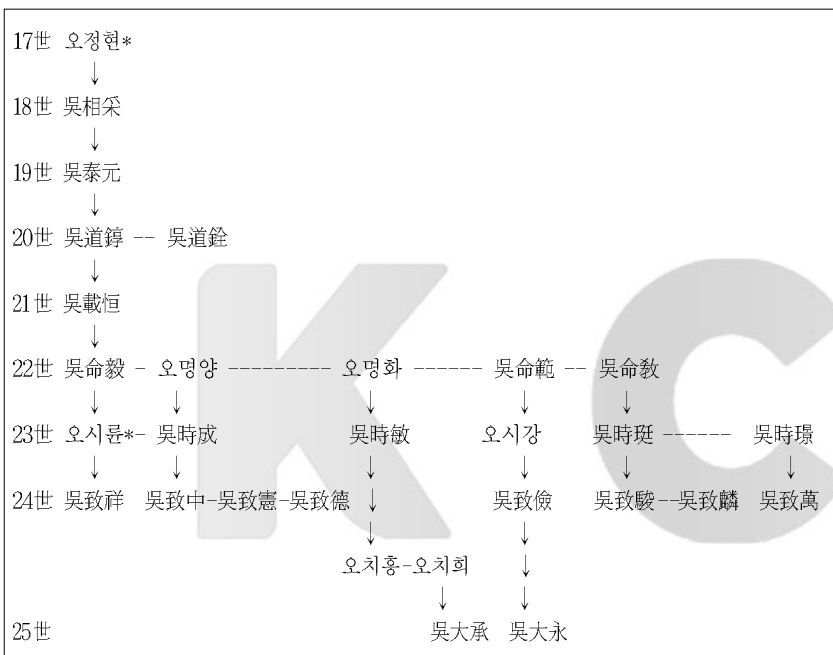


29) <부록 1>은 오정현의 一子 오상신, <부록 2>는 二子 吳相良, <부록 3>은 三子 吳相賚, <부록 4>는 오정현의 四子 吳相采를 중심으로 한 계보이다. 이는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분리한 것이다. 본 부록의 성명은 역과방목을 따랐으며, 일부 선조의 성명은 족보를 따랐다. 역과입격자는 한자로, 역과입격자는 아니나 후대 역과입격자를 낸 선조는 한글로 표기하였다. \*는 역관으로 피선된 인물이다. '↓'는 부자관계, '- - -'는 형제관계이다.

<부록 3>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계보 3



<부록 4> 낙안오씨 역과입격자 계보 4



<참고문헌>

- 「樂安吳氏世譜」. 順天: 樂安吳氏世譜所, 1930.
- 「樂安吳氏世譜」. 鳳城: [刊寫者未詳], 高宗 29(1892).
- 「樂安吳氏世譜」.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30.
- 「樂安吳氏世譜」.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30.
- 「樂安吳氏族譜」. 高山: [刊寫者未詳], 純祖 17(1817).
- 「樂安吳氏族譜」. 東巖: 向陽齋, 1918.
- 「樂安吳氏族譜」. 光州: 樂安吳氏族譜編纂委員會, 1985.
- 「司譯院榜目」. (하버드연칭도서관 소장본)
- 「譯科榜目」. (규장각 소장본)
- 「譯科譜」. (장서각 소장본)
- 「譯科類輯」.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 「譯科八世譜」. (규장각소장본)
- 「譯科八世譜」. (명지대학교 도서관소장본)
- 「譯科八世譜」. (연세대학교 도서관소장본)
-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한국역사지명사전(electronic resource). 서울: 누리미디어, [2000-].
- 한미경. “역과방목에 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30輯(2005. 6), 341-376.
- 한미경. “역과방목과 역과보의 입격자성명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1輯(2005. 9), 121-151.